

오, 주(酒)여!
-1부. 닭발 같은 크리스마스엔 소주를-

S#1. 길거리 -> 오복집 앞 (저녁) 2020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 거리.

선후배 관계인 학수와 철중이 껄렁한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다.

학수 야 너 크리스마스때 뭐하나.

철중 여친이 작년 크리스마스때부터 예약해둔 스위트룸 갑니다~

학수 오~~~ 좋겠다, 그럼 난 뭐할까?

철중 선배님은... (눈치) 소개팅 하실래요?

학수 (감탄, 어깨 두르며) 이야~ 넌 어떻게 눈치가 전역할 생각을 안하냐~!

성탄용으로 반짝반짝 하게 한명만 해줘봐라.

철중 제가 툭 까놓고 딱 세 명까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고개 절레) 아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학수 이 자식이 선임한테 영업을 하네, 뭘 넣었다 뺐다 해 그냥 까~!

철중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선배님... 진짜 지려요.

학수 야 간만에 지리게 좀 만나보자. 나 김학수야~

철중 진짜 다리 놓습니다!?

학수 아직도 안봤어? 나 김학순데? 형 몰라? 김학수라고, 김학수~

거드름을 피우는 학수, 오복집 문 열고 들어가는 학수의 모습에서 소타이틀.

1부. 닭발 같은 크리스마스엔 소주를.

성우Na 1부. 닭발 같은 크리스마스엔 소주를.

S#2. 오복집 (저녁)

오복집 문 열고 들어오는 학수.

동배 (off)어서오세요~!

성우Na 이 남자는 잠시 후 소개팅을 하게 된다.

연말 분위기로 돌아오른 술집 내부. 학수의 안경에도 뿌옇게 습기가 찬다.

안경을 벗고 테이블을 훑는데, 혼자 와있는 한 여자(강지구/29세/여/종이접기 유튜버)가 눈에 들어오는.

학수 혹시 강지구씨..(테이블에 소주두병과 닭발을 보고)는 아니시겠다(돌아서려는데)
지구 내가 강지군데?
학수 아, 맞으셨구나..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늦었나봐요. (앉으며 상황과악하는)
지구 (시니컬하게 술 따르며) 후래자 삼배.
학수 하하..농담도.
성우Na **여자1호는 농담을 해 본적이 없다.**

학수, 한잔을 마시는데 바로 따라주는 지구. 결국 세잔을 연달아 먹는.

학수 어우. 시작부터 세네요. (나름 간죽)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요?
지구 (웃음기 없이 뼈뚫하게 앉아 쳐다보고 있는)
학수 (민망) 유튜브머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유튜브브를 하시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지구 종이접기.
학수 종이접기요? 아~ 그 종이접기요? (웃을뻔 했지만 나름 조크로 돌리는) 저도 어릴
 땐 종이 좀 접었는데요. (웃는)
지구 마셔.
학수 네?
성우Na **남자1호는 귀가 의심된다.**
지구 마시라구.
성우Na **여자2호는 말끝이 짧다.**
학수 (정적을 깨고) 주로 어떤 걸.. 접으시나요?
지구 (술 따르며) 우로보로스.
학수 (잠시 버퍼링) 우로.. 뭐요?
지구 (정색하며 찌리는)
학수 (추리하는) 아~ 혹시 공룡 이름..
지구 뱀.
학수 아 그런 뱀이 있구나~
지구 없어.
학수 아 그럼 상상의 동물 같은건가요? 용처럼.
지구 들어.
학수 네?
지구 상상의 동물 맞으니까 마시라구.
학수 (자기도 모르게 잔 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아 네. 감사합니다.
성우Na **뭘가 감사한 것인가. 남자1호는 왜 감사함을 느끼는가.**
지구 술.
학수 네?

지구, 고갯짓으로 자신의 빈잔을 가리킨다.

학수 아 계속 혼자 따라드시길래.. (맞을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두손으로 따르는)
성우Na 뭐가 죄송한가. 남자1호는 왜 죄송함을 느끼는가.

지구, 소주를 한 번에 털어놓고는 빈잔을 툭! 학수를 향해 던진다.

학수 (얼떨결에 두손으로 받고) 어우 깜짝이야. 이걸 왜..
지구 합술.
학수 합술이여?
지구 (잔 하나를 치우며) 적군의 잔에 독을 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우호적인 기술.
학수 (웃으며) 우리가 적군은 아니지 않나요.
지구 (정색) 언제 봤다고 친한척이야.
학수 죄송합니다.
지구 지금부터 이 술잔은, 테이블에 내려놓지 않는거다.

침묵 속에서 술잔 하나가 공중에서 오고 간다.
마시자마자 또다시 학수에게 잔을 대충 던지는 지구.

성우Na 여자1호는 술잔을 잘 던진다.

가까스로 잔을 받은 학수, 지구가 따라주는 술을 바로 비우고, 지구가 던지라는
시늉을 하자 안깨지게 두 손으로 최대한 공손히 던지고, 받자마자 또 다시 술을
비우고 학수에게 던지는 지구.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미지..
점점 술기운이 올라오며 시야가 흐려지는 학수.. 결국 지구가 던진 잔을 받다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고 만다.

학수 어구 죄송합니다!

이때 발아래로 재빠르게 들어오는 빗자루. 보면, 사장님(오복집 주인/황동배/
/40대 후반)이 기계처럼 깨진 유리파편을 한번의 스냅으로 쓰레받기에 담아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데까지 3초도 안걸린다.

학수 (동배 뒤통수에) 죄송합니다아.. (지구를 보며) 죄송합니다. 술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빙빙 돌아서..
지구 그래서 잔이 두 개인거야. (아까 빼놓은 잔을 올리며) 이것도 깨면, 너 나랑 사귄
다? (잔을 또다시 툭 던지는)

폴린 눈에 힘주고, 사생결단으로 잔을 받아내는 학수. 다이너마이트라도 안고 있는 얼굴이다.

성우Na 지금 받은 것은 사형선고가 아닌 일개의 잔이지만, 반대로 느껴지는 남자1호다.

지구 (피식)제법이네. 마셔.

학수 (취한) 감사합니다.. (잔을 품에 안고 몸이 앞으로 기우는) ...절대.. 깨지 않았습
니다..

지구 (경고) 취하지마.

학수 (고꾸라진 채 눈감고 있는)

지구 내가 허락하면 취해. 눈깔 떠.

학수 (웃다가 우는) 눈깔이... 안 떠지는데요...

지구 정신 차려. 정신 싸움이야. 똥꼬에 힘!

학수 힘!!! (고개 들며 똥꼬에 힘주는) 근데 왜 아까부터 반말하세요.. 저보다 연배가
적으신데..

지구 난 원래 까고 시작해. 꼬우면 너도 까. (술병들고 따라주려는) 마셔.

학수 (잔을 품에 안고) 죄송해요.. 더 이상 못먹겠어요.

지구 지금부터 정신력이야. 못하겠음 여기서 포기해, 계산하고 나가!

학수 (빡친) 아이씨..진짜!!!! (벌떡 일어나 이를 악물고 술을 원샷하는)

지구 거봐! 할 수 있잖아! 모든 건 정신력이야!

학수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감동한)

지구 다 마음먹기 달렸다고. (닭발 하나를 들어 건네며) 먹어 이제.

두 손으로 닭발을 받아 조심하게 고개를 돌린 후에 먹는 학수.

지구 (닭발 통째로 우두둑 씹으며) 잘 삶았네.

학수 (눈물 맺힌) 감사합니다.

지구 니가 삶았어?

학수 (울먹이며) 아니 죄송합니다.

성우Na 뭐가 죄송한가. 남자1호는 왜 자꾸만 죄송함을 느끼는가.

학수 근데 아까 주로 뱀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잡는 게 맞죠? 잡는 게 아니라.

지구 잡는다고.

학수 뱀이 원래 접혀지는 동물인가 상상이 잘 안되어서.

지구 사람도 접히는데 뭘~ (자연스레 손을 뒤로 접듯 꺾는데 뻘소리가 우두둑..)

학수 (입 떡)

성우Na 어쨌면.. 자신도 접힐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남자1호다.

지구 그럼 이제 다 먹었으니까~

학수 (ol/기다렸다는듯) 일어날까요?
지구 후식은.
학수 (군대각으로) 먹어야죠.
지구 (동배 쪽 보며) 사장님 미소 둘 주세요!
학수 (혼잣말로) 사장님한테 존대하시네...

동배, 일반 소주 위에 매직으로 <미지근한 소주>라고 갈겨 써놓은 소주를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학수 (신기해서 보며) 미지근한 소주를.. 따로 만들어 놓으신거예요 저 사장님이?
(의아한) 이걸 먹는 사람이 있나?
지구 우리가. (소주를 한번의 스냅으로 터프하게 돌려따며) 술은 좀 미지근할 때가 진짜니까. (수저통에 꽂혀있던 빨대를 각자의 소주병에 꽂으며) 느껴봐.
학수 (빨대를 보며) 이걸루요? (살짝 용기내서 이의제기) 빨대로 술을 마시는건 제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벌칙으로 해보고 안해본것 같은데...가뜩이나 미지근한 술을 이렇게까지 먹어야 할 필요가.. (눈치를 슬쩍 보는데)
지구 빨아.
학수 네 뺏니다.

빨대로 소주를 들이키며 만취 상태로 접어드는 학수.
몸이 급격히 옆으로 기울며 90도 꺾인 상태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성우Na 남자1호는 지금 몸이 반으로 접힌 채
우로보로스의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는 학수. 하지만 또 다시 학수의 꿈속.
마치 우로보로스의 목구멍 안에 들어와있는 듯한 다른세계 CG.
지구가 가부좌를 틀고 소주병 위에 앉아있는 진귀한 광경이 보인다.

학수 (조심스럽게) .. 이봐요.. 강지구씨..!

눈을 확 치켜뜨는 지구, 입에서 뱀같은 혀가 튀어나오는데..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는 학수, 다시 처음의 술집광경 그대로고, 학수만 두고
가버린 지구, 테이블 위에는 종이접기로 만들어진 뱀만 하나 올라와있다.
얼빠진 얼굴로 그 뱀을 바라보는 학수의 모습에서..

성우Na 남자1호는 방금 바지에 조금, 지렸다.

2-1

지연 (off) 김학수씨..?

정신차리고 보면, 긴 생머리에 눈에 띄게 예쁜 여자 (한지연/여/29세/요가강사)
가 학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성우Na 여자2호는 예쁘다.

학수는 지연의 외모에 잠시 눈앞이 아찔하다. 그런데 지연이 두르고 온 스카프(목
도리)가 하필 뱀무늬고, 이걸 본 학수, 살짝 뜨겁해서 정신이 아찔하다.

지연 저기요?

학수 ..(정신차리고) 아, 네 한지연씨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며 목도리를 푸는 지연
을 보며) 그게 제가 뱀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지연 뱀이요?

학수 아니 그러니까..(이미 얼굴에 빠져든) 예쁘세요. 되게 기분 좋게 예쁜 얼굴이세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얼굴에는 좀 진심인편이라.

지연 (새초롬하게 웃으며) 일단 뭐 좀 시킬까요?

학수 드시고 싶으신 거 다 시키세요. 뭐 좋아하세요? 이 집이 닭발 맛집이라고는 하던
데, 저도 제대로는 못먹어봤거든요.

지연 (ol/조신하게) 전 그냥 소주로..

학수 아~(짐승눈빛) 그럼 오늘 살짝 취해볼까요? 사장님 여기 닭발이랑 소주 하나주
시져~!

동배가 철판 닭발에 불을 올리고, 소주를 내려놓고 가며
힐끗 학수를 보고 간다.

지연 (닭발이랑 소주를 그윽히 보다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지 않아여?

학수 (살짝 당황했지만 웃으며) 뭐가요?

지연 (신나서) 이 모~~~~~

성우Na 여자 2호는 폐활량이 좋다.

지연 ~~~~~든게요. 너~~~~~무 너무 아름답잖아여~

학수 (주변을 둘러보며) 어땀게..

지연 (해맑게 주변을 둘러보며) 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있궁~아
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았구~ 그리궁~(물개박수치며)이 닭발들이
너~~~~무 너무 가지런하잖아요. 꼭 줄 선 것처럼~하하하하하! (닭발과 대화시
도) 니들, 군대 왔니? 필승!! 하하하하 (능숙하게 비닐장갑을 끼서 닭발 하나를

들고) 원래 닭발은 좀 식혀 먹어야 맛있는데 (뜨거운데도 입에 넣고 스윽 훑는)
으으음~~~~~(주전자 끓는 소리까지 치닫는)

학수 (놀란) 뜨거우시죠? 괜찮으세요? (급하게 물 따라서) 여기여 물!!

지연 음~~~~이 부드러움 어쩔? 저 지금 일도 안 삼켰는데.. (입을 짹 벌려서 보여주
는) 입에 하나도 없어요. 개인기 개인기! 완전 신기하져 완전! 하하하하

학수 (당황한) 아.. 개인기셨구나....

지연 잠깐만요 (손번쩍) 사장님~이거 미소로 좀 바꿔주세요~!

미지근한 소주를 들고 오는 동배, 소주를 내려보며 학수를 또 힐끗 보고, (넌 아
니라는 듯) 고개를 살짝 저으며 퇴장한다.

학수 (소주를 보며 정색) 요즘...미지근한 소주가 유행인가요.?

지연 글썄요? 전 대학때부터 마셨는데? 미지근한게 목에 착 붙잖아요.(술병을 흔드는)
학수 술을 좋아하시나봐요.

지연 (술병을 넘기고 따라달라고 잔 드는) 딱히 애주가는 아닌데여 술은 매일 먹어요~

학수 (술 따라주며 무슨 말인가 싶은) 아..

지연 제가 남자는 아닌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요~(배시시 웃으며 술을 따라주는)

학수 (잔 받으며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남자요?

지연 아!! 저 남자보다 좋아하는거 있다. 남자랑 같이 술 마시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둥근해가 떠있는거? (귀엽게 잔들고) 오늘 도전? (건배하며) 짬~!

학수 (건배하고 마시며) 되게.. 상큼 발랄 하시네요.

지연 (알아서 자작하며) 기분이가 늘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연이느..

학수 연이네요?

지연 저 지연이요! 어우~~~진짜 센스없똥!! (바로 또 원샷)

학수 (화들짝) 똥이요?..

지연 (신나서) 아니 그 똥 말고! (혀를 말아서 들이대며) 똥이요 똥! 귀엽게 똥!

학수 아 네..

지연 (술따라주며) 아, 복덕방 하신됐죠?

학수 (잔 받으며) 아니요. 전 증권가에서 선물거래 담당(하고 있어요)

지연 (ol/신나서 오바하는)어머~~~~~어머어머어머~웬일이야 웬일~
명절엔 진~짜 개바쁘시겠당 선물담당이시면.

요즘엔 고객관리 그런것도 잘해야되죵? 정말 과학이 너무 발달했어..!

학수 (얼빠진 얼굴)

성우Na 여자2호는 뇌가 하얗다.

학수 혹시..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끼고 키스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턱 피고 해맑게 웃으며) 좋아요~

학수 음.. 육아휴직 기간은 적당한 걸까요?
지연 좋저~ 결혼 좋잖아여.
학수 성형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지연 좋아요~ 성형 좋잖아여.
학수 동성애는..
지연 좋저 좋저.
학수 트럼프에 대해선 혹시?
지연 좋다마다~!
학수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에 엠티가 있는데..
지연 (턱 피고 있다가 반짝) 어머 단체로 모텔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학수 (억지로 웃는) 아..하하...지연 씨는 모든 게 다 좋은가 봐요. 싫어하는 건 없어요?
지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싫어하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
학수 (한대 맞은 듯 한 표정에서)
성우Na **남자1호는 이 여자가 어찌면 천재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연 어머, 술 없다.
학수 아, 네. (술 따라주려는데)
지연 잠깐만요? (빈 잔보고 애교절정) 술잔 너어~~~~~ 채워줄꼬얌!

지연의 애교가 당황스럽지만 애써 웃으며 소주를 따라주는 학수.
그러자 채워지는 잔을 보며 신난다고 박수를 치는 지연.

학수 박수는 원래 그렇게.. 많이 치시는 편이세요?
지연 하하하하, 저 물개 같지 않아요? (리듬구호에 맞춰서) 뽀뽀! 뽀뽀뽀! 뽀뽀뽀뽀!
뽀뽀! 하하하하하하하
학수 (점점 짜증) 웃음도 진짜 많으시구나.. (계속 웃는 지연을 보며) 근데 뭐가 그렇게 웃기신거예요?
지연 아니 그게 너~~~무 너무 (자기도 잊어먹음) 뭐였더라?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왜 웃고 있었지? 하하하하하(죽겠다며 웃다가 빈병 보고) 어머어머어머 술 없어 술없어~술 완~전 없어! (더 시키려는데) 사장님~~
학수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미팅이 있어서.
성우Na **남자1호는 내일, 미팅이 없다.**
지연 어머 너무 잘됐다, 저도 내일 아침수업 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 바다 보러 갈래요?
학수 바다요?
지연 (사랑스럽게 보며) 네. 그 바다 맞아요..파도도 있구.. 등대도 있구...모텔도 있구..
학수 (예상치 못한 단어에 눈빛 바뀌며) 어우. 진짜요?

지연 (수줍게 불러본다) 재희 아빠..!
학수 (잘못 들었나) 재희 아빠요?
지연 (비밀 말해주듯 두 눈을 찡긐하며 속삭이는) ..제 애기이름이요. 재희.
학수 잠깐, 결혼하셨었어요?
지연 결혼은 늘 준비돼있구요. 재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제 애기 이름이에요.
물론 지금은 누군지 모를 한 남자의 정자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요. (긋속말로) 혹시 그쪽? (놀라서 정지된 학수를 보며) 하하하하하. 멈췄다 멈췄어!!!! 일시정지 화면같애! 하하하하하

지연, 미친듯이 배꼽잡고 웃다가 결국 뒤로 넘어가는 데에서...

지연 (넘어진 상태에서) 어머 웬일이야! 하하하하 나 자빠졌어. 너무 웃기죠?! 하하하
학수 팬찮으세요?
지연 아 팬찮아여 팬찮아여~ 아 나 너무 웃겨. 미치겠어. 눈물 나. 저 쯤만 있다 일어날 게여. 아~ 나 다리에 힘 풀렸어.
학수 죄송한데 전 잠깐 화장실좀... (자빠져있는 지연을 피해 돌아서 가는)
성우Na 남자1호는 이제 예쁜 여자가 싫다.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하는 학수를 따라가는 카메라.(원썸으로 연결)
동배 (off) 화장실 저쪽이요!

그대로 급유턴해서 반대로 향해가는 학수. 가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성우Na 남자1호는 오늘, 평범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

2-2 저만치 테이블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보면
안소희(여/29세/예능작가 세컨드) 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화를 받고 있다.
눈인사를 하는 두 사람, 학수가 소희의 테이블 자리로 건너오는

학수 안소희씨..?
소희 (그 와중에도 타이핑을 마무리 하며 올려다보는) 아 네. 제가 안소희예요.
학수 .. 일하고 계셨나봐요.
소희 아, (노트북 덮는) 죄송해여. 일이 좀 터져서.
학수 (앉으며) 팬찮습니다. 예능작가시라고 들었는데..
소희 아 네. 좀전에 갑자기 게스트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본 좀 급하게 수정해주느라,
(미안하지만 할 일은 해야됨) 쯤만 더 하면 되긴 하거든요.
학수 아~ 그럼 마무리하세요!! 전 신경 쓰지 마시구.
소희 (상냥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다시 펴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뿔테안경을 쓰더니 머리를 질끈 묶고 빛의 속도로 타자를 치기 시작하는 소희.
그런 소희를 쳐다보는 학수의 눈빛에서..

성우Na 남자1호는 여자3호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
미세하게 빨라지는 타자소리는 남자1호의 심장을 더 자극한다.

이 때 요란하게 울리는 소희의 벨소리.

소희 (상냥하지만 다급하게)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학수 네네! 편하게!
소희 (전화받음과 동시에 예민모드/낮은 톤으로) 스케줄이 안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
야.. 니네 스케줄 미리 확인 안 했어? 스케줄을 이렇게 잡고 퇴근했음 안 되는 거지..
(한숨 쉬며 싸늘하게) 매니저 누구야. TM에 안광호? 일단 알겠어 끊어봐.

전화를 끊더니 상냥하게 다시 학수를 바라보는 소희.

성우Na 여자3호는 공과 사가 확실하다.

소희 죄송합니다~ 내일 대체하기로 한 게스트가 또 스케줄이 안된다고 번복을 해서..
학수 역시 방송이 참 변수가 많네요.
소희 (상냥하게) 괜찮으시면 전화 한통만 더 해도 될까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학수 하세요! 일단 전 신경쓰지 마시구.

다급하게 전화를 하는 소희. 신호를 기다리며 안받는지 점점 열받는 얼굴, 슬슬
'섭외시 작가 모드'로 태세 전환하는.

소희 (전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지나가는 동배 캐치)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요.
동배 미지근으루?
소희 (눈빛으로 꼬덕하다가, 급 영업인 말투로 전향) 매니저님~~~~ 저 안소희 작가
예여.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아 네~ 근데 프로필 딸 사진 너~무 이쁜거 아니
예요? (능청)어머 아들이예요? 웬일이야 웬일 저 딸인줄 알았잖아요 너무 이빠
서.. / (스무쓰하게 넘어가는) 안그래도 막내한테 얘기 들었는데 스케줄을 어찌다
그렇게 잡으셨대.. 애기땀에 요즘 정신없으신가보다../ 아~~퀴즈가 부담이셨구나.
그럼 말씀을 하시져, 스케줄 핑계 대서봤자 저희 한다리 건너 다 아는데.. 그럼 매
니저님! 이렇게 하실게요. 저희가 10개중에 3개를 미리 드릴테니까 일곱 개만 터
실게여 / (듣다가).. 그럼 다섯 개 갈게여. 저희 진짜 원래 이렇게는 안드려요../
(정색) 그럼 뭐가 마음에 안드시는거예요? 아~~MC가 마음에 안드셨구나. . 근데

그러면 애초에 왜 하겠다고 하신거예요? 아니 어쨌든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다른 게스트 안알아본거잖아여. 이렇게 나오심 안되져. 저희가 방송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닥 다 아시면서 낫설게 왜 이러세여 진짜. (슬슬 험박) 회사에서 신인들 음뱅 출연도 하셔야 될거 아니에여. 저희 같은 씨피님인건 아시져. 이러면 공유할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 (완전 정색) 치사? 너 방금 작가한테 치사하다 그랬니? 광호야.. 니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시야 확보가 안되나본데, 길게 멀리 봐야지. 근시가 심한가봐. 아니다~ 그냥 펑크내. 그럼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엿을 먹일거니까. 어차피 이 바닥 좁아서 얼마 안걸리는거알지? 너 매장될때까지. 그 전에 나랑은 마주치지 말구, 너 그러다 지미짚에 대가리 낄 거 같애. / (잠시 정적 / 갑자기 표정풀며 온화하게) 아~~~ 그럼 그러실래요? 아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매니저님 완전 짱이야. 그럼 문제 일곱 개랑, 아 다섯 개요? 아우 기억력도 좋으셔. 다섯개랑 스탠바이 시간은 저희 막내가 따로 연락드릴게여~ (해피콜 톤으로) 네네~ 네~~~~ 내일 제가 커피살게용~~~내일 배용! (전화끊자마자 학수 시선 느끼고) 전화가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이제 해결됐어요..

학수 ..상황 대처가 진짜 빠르신것 같아요.

소희 이게 일이죠 뭐. (소주를 들고) 한잔 하실까요? 그러고보니 짬도 안했네. 제가 먼저 따라드릴게요. (공손하게 소주를 따라주며) 7부? 8부? 아님 짹 채울까요?

학수 (웃으며) 아 네 뭐 편하신대로. (혼잣말하듯) 빨대로만 아니면..

소희, 이어서 자기 물컵에는 소주를 팔팔팔 아무렇게나 들이 붓더니 정말 목말랐던 사람이 물먹듯이 꿀꺽 꿀꺽 삼킨다.

학수 어어!! 아니 소주를 그렇게.. 펜찮으세여?

소희 (3분의 2정도 시원하게 먹고 내려놓으며) 아우 살것 같다. (놀란 학수보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입에서 단내가 나가지고 화좀 식히느라.. 어머, 그러고보니 제가 또 짬도 안하고 혼자...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주물컵 들고 남은 3분의 1 마저 마시는)

학수 제가 너무 바쁘신 날 보자고 한거 같아요.

소희 오늘이 제일 한가한 날이에요.

학수 밥은 드세요?

소희 (농담하듯 예쁘게 웃는) 밥이 뭐가.

학수 아. 그러고보니 안주도 안시켰네. 일단 좀 밥되는 걸 먼저 시키죠.

소희 (반짝이는 눈) 제가 시킬게요.

2-3 컷튀면, 막걸리를 꿀떡 꿀떡 마시고 있는 소희.

학수 (병찜) 이게.. 밥되는거..

소희 (웃으며) 곡주가 밥이죠. 안드세요?
 학수 아.. 저는 막걸리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전 그냥 맥주나 한잔 하겠습니다.
 소희 (손 번쩍)사장님! 여기 히야시된 생맥 이빠이로 두잔 부탁드립니다!
 학수 시야시 아닌가요?
 소희 아~시아시라고들 하는데 원래는 히야시가 맞는 발음이에요. 작가니까 바른 표현 으루? (웃는)
 학수 (멋쩍게 웃으며) 좀전에 이빠이라고..
 소희 아~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빠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이 없어요. 많이 달라고 하면 여기까지 주는데 (손가락으로 글라스의 10분의9 를 가리키는) 이빠이 달라고 하면 여기까지 주거든요. (글라스의 끝을 가리키는)
 학수 아....

이 때 문자가 오고, 노트북으로 퀴즈문제를 확인하는 소희.

소희 잠깐만요? 메일만 좀 확인할게요. (메일열고 퀴즈문제 보는) 아...퀴즈문제 가... (고개를 절레) 이거 좀 까리한데.. 저 잠깐 퀴즈 하나만 좀 맞춰 주실래여?
 학수 제가요? 아.. 네 뭐.
 소희 감사합니다~(노트북 보고 읽는) 최근 몸 안에 독소를 빼는 디톡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기적의 주스라 불리는 ABC주스가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해독은 물론 혈관 청소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진 ABC 주스의 A,B,C는 각각 뭘까요?
 학수 (생각하다가) A는..애플! C는.. 캐롯이니까 당근! B는 비타민?
 소희 땡! 비타민은 V이잖아요!
 학수 아 그럼..베지밀?
 소희 땡!정답은 비트였구요. (노트북을 보며) 힌트가 영 재미가 없는데...
 학수 혹시...(오토바이 만세동작하며) 그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 이거 어떨까요?
 소희 (노트북만 보다가 그제야 시선 맞추며) 올~~~~ 제법인데? 감이 좀 있는데요?
 학수 (씨익)
 소희 (타이핑 하며) 그럼 두번째 힌트를 그걸로 가고, 첫번째 힌트를 뭘로 하지.
 학수 (자신감 얻은) 아!! 때가 쏙~~~ 이거 어떨까요?
 소희 (타이핑 하며 정색) 야 재밌냐? 재밌어? 상표노출 어떡할거야?
 학수(꼴앳음)
 소희 어머 죄송해요! 후배 작간 줄 알고, 맘 상한거 아니죠?
 학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허허. 재밌네요.
 소희 고맙습니다~ 그럼 문제하나만 더 풀어 주실게요. 최근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이것이 인기라는데 한국 재래시장에서 가장 사고 싶은 물건 1위로 뽑 힌 이것은 뭘까요?
 학수 (손까지 들고) 삼?

소희 땡!

학수 고무신?

소희 땡!

학수 아, 빨간내복!!

소희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머리에 내리치는) 땡! 땡! 땡! 땡!!!

학수 아얏!!

소희 (노트북 보며) 정답은 몸빼바지 였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가...

학수 (너무 안타까워하는) 아..맞힐 수 있었는데! (머리에 통증이 오는) 아야....

소희 어머, 괜찮으세요? (빨강게 달아오른 이마부분을 두 손으로 막 비비며) 어머 빨개졌어.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봐.. 어떡해. (엄마처럼 감싸서 호호 불어주기까지)

학수 (조금 당황했지만 싫지않은) 호호.. 괜찮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시다.

소희 땀집이 있으시구나. 아 그럼.. 별칭 몇가지만 테스트 해주실래요?

학수 뭐 얼마든지. (살짝 두렵지만)

소희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튕겨 이마로 명중하는 땡!) 아프세요? 어느 정도 아프세요? 기분이 막 더럽거나 그렇진 않져? / 사장님! 여기 간장이랑 와사비좀! 까나리도 있어여? / (맥주잔에 정체모를 액체류를 주면서) 이제 이거 한번 마셔보실게요. 코막으시구요 (먹는거보며 고개를 절레) 흠... 간장 비율을 확 높일까? 그래야 코에서 액션이 나오겠는데../ (신고 있던 밴드 스타킹을 벗어서 얼굴에 씌우고) 이거 뒤집어 쓰신 다음에 촛불을 한번 꺼볼게요. (나무젓가락 주면서)자 이제 이거 한번 꺾보실게요 똥꼬에. / (청양고추 잘라서 콧구멍에 꺾넣으며) 1분 버티실게요~ 눈물좀 참으실게요~!!!

컷되면 머리는 산발에 이마엔 흑이 나있고, 눈물범벅에 만신창이가 된 학수.

소희 어머 괜찮으세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학수 (제정신 아닌)... 재미는.. 있어여...

소희 잠깐만여. (전화받는) 어. 아름아. 무슨 일이야? (정색/한숨).... 알았으니까, 일단 내가 주소 찍어주는 곳으로 잠깐 올래? 응 지금. (표정 굳은)

학수 (눈물 닦으며) 무슨 일 있으세요?

소희 죄송한데 후배를 잠깐 불러야 될 거 같아여.

갑자기 그만두겠다는데 이게 지금 잡아야 잡히거든요.

컷되면,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는 후배(아름)에게 술을 따라주는 소희.

소희 마셔..

아름 (마시고, 표정 굳은 채 눈 내리깔고 있는)

소희 목디스크는 좀 어때? 병원은 다니니? (말이 없자) 어휴...그래..알아.. 좋은 대학

나와서 맨날 한다는일이 언니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소품이나 만들고 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밥도 못 먹고 맨날 매니저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시청률 안
나오면 작가탓이고 잘되면 연예인 탓이고.. 방송에서 내 스크롤 올라가는거 본방
볼 시간이나 있어야 보지.. 나간다한들 보이거나해? 1초도 안 돼서 지나가는거.
빠 빠지게 죽어라 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영양제는 사면 뭘해, 먹을 시간이
있어야지.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는거..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진짜 때려치우고
싶지 왜 안그러겠어..

아름 (눈물이 흐르지만 이 악물고 참고있는)

소희 근데..... (뜸들이다가) 버터.

아름 (부어터진 얼굴로) 제가 왜 더 버터야 되는데요?

소희 (멋지게) 왜냐면... 니가 없으면 안되니까.

아름 (갑자기 서러움 폭발해서 눈물 제대로 터지는)

소희 (학수한테 눈빛) 뭐해요, 안달래구.

학수 (아름 등을 토닥여주며) 정말 보람된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전 그래도 그렇게 열정
적인 당신들이 정말 부럽네요 진짜. 조금만 더 힘내고 참아봐요! 네..?

아름 (울다가 한숨쉬며 꺾어지는) ...할게요.

소희 그래, 그거야. 됐다 이제. (안도의 한숨쉬는)

학수 (진심으로 좋아해주며 아름 토닥여주는) 진짜 잘생각했어요!! 후배님 없으면 안
된다잖아여. 진짜 힘내십쇼!

컷되면 파이팅 하며 “건배!!” 하는 세사람의 모습에서...

소희 쪽 마셔. 그리고 오늘은 아무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커다란 컵에 쏘맥 원샷하고 그대로 엎어지는 아름.

학수 줌전에 후배한테 하셨던 말, 감동이있어요. “버터. 니가 없으면 안되니까.” 오..

소희 (엎어진 아름을 보며, 자조적으로 털어놓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애 없어도 돼
요. 어떻게든 방송은 굴러가고 애 없어도 남는 작가는 많으니까. 근데 또 일단 잡
아놔야 다른 작가 구할 시간을 버니까.. 또 일단 잡는 게 선배의 의무니까.. (웃
픈듯 자기잔에 소주 따르며) 그니까 잡는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 생각말고 자
라고 해놓고 내일되면 또 갈구겠죠.

학수 줌.. 무서운데요?

소희 네. 이 일이 다단계보다 무서워요. 절대 못헤어나오죠. 나도 그 거짓말에 당했으
니까, 그래도 버티는 이유라면.. (술을 마시며 웃픈) 버터야 술이 다니까?

학수 ..그래도 소개팅은 하시네요. 연애할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

소희 (아무렇지않게) 술 먹을라구요. 회식하면서 술먹는건 진짜 싫거든여. 잠깐만여?

(전화받으며 급 군대톤) 네 피디님! 지금요? 아 10분이요? (전화받으며 노트북
덮고 물한잔 먹고 가방 챙기는) 네 지금 잠깐 아래에 있는데 바로 올라갈게요! 네
에~~ (뒤도 안보고 빛의 속도로 뛰쳐나가는)
동배 (지나가면서) 저러고 한 두시간 있음 또 와요.

학수,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워있던 아름이 게슴츠레 눈을 뜬다.

아름 (폴린눈으로) 누구세요?
학수 ...(표정)

때마침 벽에 걸린 티비에서 예능프로가 끝나고 스크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걸 바라보는 학수.

학수 진짜 빨리 지나가긴 하네.. 보란거야 말란거야.

일어나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만신창이 된 모습에 흠칫 놀라는 학수.
그리고보니 테이블 위는 각종 게임과 벌칙의 흔적들로 난장판이다.

성우Na 남자1호는 오늘의 만남이
한편의 예능 프로를 본 듯 버라이어티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가는 학수) ... 뭐가 남았을까.
여자3호는 남자의 기억에서 스크롤만큼이나 빨리.. 사라진다.

티비화면) 엔딩 크레딧에 안소희라는 이름이 빠르게 지나가버리는데에서.

S#3. 오복집 앞 (밤)

오복집을 나온 학수. 잠시 서서 담배를 꺼내 물며 철중에게 전화를 건다.

철중 (F)아 선배님! 어떠셨습니까?!

학수 야 어떻긴 내가 뭐 다 죽여줬지. 근데 너 개네랑 어떻게 아는 사이라고?

철중 (F) 개네요? 개네가 저희 대학교 때 술 잘 먹는 걸로 원투쓰리였거든요.
애들 골때리져. 술 또 엄청 퍼 마셨을텐데 형 괜찮았어요?

학수 철중아 왜이래~ 나 김학수야~

철중 (F) 워얼~~그럼 크리스마스는 뜨겁게 가시는 겁니까?

거만하게 입에 담배를 무는 학수.

이 때 저만치서 오복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지구를 먼저 보는 학수.
놀라서 담배도 떨어뜨리고 허겁지겁 몸을 숨기며 우당탕탕...

철중 (F)선배님! 왜 그러세요!!
학수 (ol) 조용해 새끼야. (몸 뒤로 숨기고 숨까지 참으며 지구 동태를 살피는)

그런 학수를 힐끗 보는가 싶더니, 이내 오복집으로 들어가는 지구의 모습에서.
어느새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된듯, 눈이 내리며 캐롤이 흐른다.

S#4. 오복집 외경 (밤)

S#5. 오복집 (밤)

지구가 먼저 들어오면서, 닭발을 시킨다.

지구 사장님, 여기 매운 닭발이요! 완전 매운걸로! 청양고추 팍팍 넣어서!

이 때 지연이 연이어 들어오며

지연 시켰어? 매운 닭발로? (동배한테) 사장님 청양고추 팍팍이용!!

컷팅면 철판에 지글지글한 매운 닭발이 먹음직스럽게 올라온다.
닭발위에 잘게 썰린 청양고추를 붓는 지구.
이 때 소희가 급하게 뛰어 들어오며 자리를 채운다.

소희 (닭발보며) 으아 맛있겠다, (비닐장갑 끼는) 매운거 맞지?

지구Na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고 동시에 닭발을 좌로 쓰윽 훑는 세 사람.
우린, 친구다.

지연Na 한손으로는 소주잔을 들고, “적시자!” 소주잔을 입안에 터는
말보다 건배를 믿는, 진정한 술친구.

술잔을 동시에 탁! 내려놓고, 콩나물 국을 걸지게 들이키고는 크하!!!
빈 술잔에 술을 채우는데에서...

소희Na 자고로 닭발은 훑어야 맛, 술잔은 부딪쳐야 맛,

남친은 크리스마스 때 생겨야 최고의 맛! 이지만...

동배 크리스마스때 다들 못 온다 안했어?
셋다 (뜯던 닭발을 더 뜯으며) 저희가요??
소희Na 우린 모두 차였다.
지연Na 하지만 괜찮다. 크리스마스에도?
지구Na 뭐 술은 파니까~

캐롤이 분위기를 돋우며 옆테이블에서 뽀뽀하는 연인들.
현란한 기술로 각종 술을 다 말아서 500CC잔을 쳐드는 세사람.
갑자기 지구가 벌떡 일어나고, 술 먹던 사람들 다 쳐다보는.

지구 (술잔 들고 군대톤으로) 나 강지구! 내년 크리스마스엔 꼭!
술 안먹고 남자친구 먹을거다!!

원샷하는 지구. 주변 사람들 취해서 같이 박수쳐주고, 그러자 소희도 잔을 들고
벌떡 일어난다.

소희 나 안소희! 내년엔 꼭!!
남친 두 명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양다리할거다!!

원샷하는 소희. 주변 사람들 더 크게 환호하며 박수쳐주는.
그러자 “나도 나도 나도!” 질세라 지연이 일어난다.

지연 크흠. 나 한지연!! 내년엔 꼭!!
두명이랑 할거다! (만세 하며) 2대1로 동시에!!!!!!

갑자기 적막이 흐르는 술집.
“죄송합니다..” 사과하며 지연을 말리는 소희와 지구의 모습에서..

지연 왜에? 너~~~~~무 너무 재밌을거 같지 않아?
소희 앓아 쫄..!

S#6. 에필로그 / 도심 폭대기 (혹은 옥탑) (밤)

캐롤이 흐르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달밤에 술 춤 추는 세 여자들의 뒷모습이 달빛에 비춰지며 엔딩.

-1부 끝